

[TV]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Radio 산책

Table with 4 columns: TBN 광주교통방송, CBS 기독교방송, PBC 광주 평화방송, 광주불교방송. Lists radio programs and their frequencies.

한영 "연예계는 날처럼 변화무쌍해요"



솔로 데뷔음반 타이틀곡 '컴 온! 컴 온!'으로 활동

"제가 짧은 시간 경험한 연예계는 기상 변화와 비슷해요. 해가 쨍 내리되다가 어느새 안개가 자욱해지죠. 어떤 날은 너무 맑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1998년 슈퍼엘리트모델 출신으로 2005년 트로트 그룹 LPG로 데뷔해 최근 솔로가수로 나선 한영(본명 한지영)은 연예계 생활 3년의 느낌을 날씨에 비유했다. "물론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겸손함도 잊지 않았다.

뷔 음반 '퍼스트 인비테이션(1st Invitation)'을 최근 발표했다. 이정화, 이효리, 서인영 등 썸시 솔로 여가수들이 대거 쏟아진 상황에서 181cm의 늘씬한 미녀는 반대로 귀여움을 무기로 내세웠다. 남자 가수가 많을 때 여자 가수가 드물면 희소 가치가 있겠지만 여자 선배 가수들 덕분에 가요계로 시선이 집중되는 현실이 더 감사할 따름이라고. 귀여움을 내세운 만큼 박해문이 작곡한 타이틀곡 '컴 온! 컴 온!(Come on! Come On!)'은 달콤한 트윌트스 풍의 댄스곡이라는 의미에서 '스위스트(Swist)'라는 새로운 장르로 내놓았다. 또 스페이스 계열의 미디엄급 '차갑게 차갑게'와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와 이선희의 '영'을 리메이크 했다.

"제 솔로 음반을 내면 '영'을 리메이크해 보고 싶었어요. 개그맨 이수근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영'이라고 부르며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제 이름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는 홍경민 씨가 듀엣을 했었어요." "방송사에 가면 엔도르핀이 솟는다"는 그는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잘하고,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하는 악바리"하면서도 "누구를 따라하겠다는. 께겠다는 목표는 없다. 음반을 냈으니 노래에 대한 욕심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저를 '팍' 터지는게 아니라 천천히 상승세를 타라고 하세요. 그래도 올라가긴 하는 거잖아요. 솟은 달귀지는데 오래 걸리지않는 데도 오래 걸리지. 모든 분들께 천천히 제 이미지가 각인되면 저를 지우기도 힘들겠죠?" /연합뉴스

Table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including CMB, KCTV, EBS, and EBS Plus 1 & 2.

나를 부르는 죽은 친구의 속삭임

영화극장 '여고괴담 4' (KBS1·1일 새벽 0시 55분)

울산한 소리로 가득 찬 상원여고 지하 기계실. 영연과 선민은 이곳을 비밀 아지트로 삼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다. 교내 방송반 아나운서를 맡을 정도로 활기찬 선민과 달리 영연은 뛰어난 노래 실력 외에는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아이. 늦은 밤, 텅 빈 음악실에 홀로 남아 노래 연습을 하는 영연의 노래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다. 잿빛 교정을 감싸는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 소리. 그 날 밤, 영연이 살해된다. 지루한 아침 조희시간, 선민은 영연의 빈자리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 점심 방송을 진행하던 선민은 예타게 자신을 부르는 영연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비좁은 방송 부스 안에는 오직 선민 뿐! 선민은 실체 없는 영연의 목소리에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다. 선민은 영연의 목소리가 오직 자신에게만 들린다는 사실이 두렵지만, 목소리만 남은 친구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어젯밤 쓰러졌던 엘리베이터 앞은 물론 학교 어느 곳에서든 영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고심하던 선민은 평소 영연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음악 선생 최연호를 의심한다. 그 날 밤, 영연과 함께 음악실을 찾은 선민. 감광한 음악실, 보편대 시이를 헤집던 선민은 첼로 줄에 목 맨 최연호 선생의 시체와 마주하고 경악한다. 잊따른 의문의 사건들로 선민은 영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두렵다. 혼란스러워하는 선민에게 같은 반 초아가 다가선다. 어릴 적부터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초아. 초아 역시 죽은 영연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선민은 초아의 뜻밖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사실에 위로 받는다. 그 무렵 학교 엘리베이터 통로에서는 목이 찢긴 영연의 시신이 발견되고, 선민에게 들리는 영연의 목소리가 기괴하게 변해 가는데..



Table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including CMB, KCTV, EBS, and EBS Plus 1 & 2.

Radio 산책

Table with 4 columns: TBN 광주교통방송, CBS 기독교방송, PBC 광주 평화방송, 광주불교방송. Lists radio programs and their frequencies.